

지역사회결속력(Community Solidarity)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강철희 · 홍현미라*

본 연구논문은 지역사회역량 사정의 요소이자 인적자원의 요소이면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결속력의 수준을 측정해 보고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시의 한 자치구 30개 동의 일반주민 1924명과 여론지도층 397명이며, 결속력 수준 측정도구는 Fessler의 지역사회결속지수(Community Solidarity Index:CS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변인과 지역사회 해체 및 특성변인, 지역사회 참여 및 지위변인, 지역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변인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전체결속력수준은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3.10점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목되는 변수들은 생활보호대상자여부 변수, 지역사회참여 변수, 자원봉사참여 변수,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변수들이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즉 무엇을 통해 실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실제적인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 강철희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홍현미라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측면에서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조명과 기초지식을 제공하여 후속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1. 서론

지역사회구성원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리적 영역 안에서 결속의 감정을 가지고 유대관계를 만드는 것(Durkheim, 1964), 상호지지와 공유된 동일시의 감정(Rubin & Rubin, 2001)을 가지는 것, 지역사회의 제도화된 하위체계의 순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지와 참여 감정(Fessler, 1952)을 가지는 것 등을 의미하는 지역사회결속력은 지역사회역량 사정의 요소(Ronnby, 1995)이자 동시에 지역사회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의 한 요소(Ronnby, 1995)로 간주되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결속력은 지역사회복지실천(community practice)과정에서 추구되는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Swedner, 1983; Ronnby, 1995).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결속력을 형성시킨다는 것 혹은 이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지역사회로부터 편안함과 사회적 안정감(Allen & Morgen, 1999; Goodsell, 2000) 및 소속감(Rubin & Rubin, 2001)을 제공받아, 지역사회를 “단순한 주거 공간(space)”의 차원을 넘어 “삶의 의미를 주는 주거 장소(place)”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역사회결속력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의 감정과 동일시(Milson, 1974)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구성원들이 지역의 다양한 구성요소들과 사회적인 연결(social links)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지역사회 구성 요소이다(Ronnby, 1995).

전통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community practice)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지지적 환경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결속력 형성 및 향상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져 왔다(Martin & O'Connor, 1989). 아울러서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역 자치적 능력(community competence)을 제고하고자 할 때에도 지역사회결속력은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진다(Fellin, 1995). 특히 지역사회개발 모델(locality development model)은 지역사회결속력이 지역사회 변화과정의 기술적 필요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결속력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Ronnby, 1995). 지역사회복지 실천 전반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가져오고 지역사회 통합력을 제고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요소로 지역사회 결속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결속력이 갖는 의미는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하다(Rubin & Rubin, 2001).

이러한 의미를 갖는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아직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 등의 분야(김석준, 1988; 홍동식, 1988)에서 아주 미미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분야에서 이에 대한 기본적 지식의 축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전략과 기술의 개발 측면에서 많은 제한점들이 있다. 그 동안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국내의 논의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과 기술 부족(황성철, 1997)의 문제 및 사회의 공동체성 상실과 그로 인한 사회 해체(정무성, 2000)의 문제를 제한적으로 지적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규범적 논의의 성격을 가졌다. 즉 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변화의 전략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결속력에 관해서는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의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지역사회복지 실천 전략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실제적인 시각에서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먼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결속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파악해 보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역사회결속력을 분석하는데 있어, 선행연구들이 주목하였던 개인적 특성요인과 지역사회 해체 및 특성요인에 더해, 지역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해 보다 직접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 및 지위요인과 지역사회 문제 인식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에 기반 하여 우리나라에서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전략과 기술이 무엇일 수 있는가를 지역사회결속력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역사회결속력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한 자치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자료에 기초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의 한 자치구

30개 동의 일반 거주자와 여론형성에 중요한 거주자(key informants)이다. 본 연구는 이 자치구에서 multiple cluster sampling의 방법으로 추출된 일반 거주자 1924명과의 인터뷰 그리고 여론 형성에 중요한 거주자 397명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형성된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렇게 일반 거주자와 여론형성에 중요한 거주자 두 집단 모두를 결합해서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지역사회결속력 척도는 Fessler(1952)의 "지역사회결속지수(Community Solidarity Index: CSI)"인데, 본 연구는 이 척도를 번안한 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한 자치구만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의 제한성을 갖는다.

2. 선행연구 검토

1) 지역사회결속력 개념구성과 유용성 고찰

(1) 지역사회결속력 개념에 대한 논의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해서 '지역사회응집력(cohesion)', '지역사회애착(attachment)' 또는 '근린지역 사회적 결합(neighborhood social ties)', '지역적·사회적 유대(local social bonds)', '상호 유대(mutual bond)', '집합적 힘(collective power)', '공통의 목적을 향한 행동' 등 다양한 차원에서 그 내용이 설명되고 있다. 지역사회결속력 개념에 대한 논의를 단순화해서 정리해 보면,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 개념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결속력은 지역사회에서의 상호작용과 관계형성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community spirit)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한 학자로 Durkheim(1964)을 들 수 있는데, 그는 결속력을 '우애 관계(relations of friendship)'에 기반한 '결속의 감정'으로 정의한다. 그는 우애관계에 기반 하는 지역사회 결속력은 도덕적(moral)이며 감성적인(affective) 내용을 주축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상호관계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는 Ronby(1995)는 지역사회결속력은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상호관계에 기반 하는 것으로서 그 결속력의 정도는 상호관계의 강도에 의해 측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동일시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어서 지역사회결속력을 설명하는 Rubin과 Rubin(2001)은 사회적 결속력이란 상호지지와 공유된 동일성에 대한 감정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정의는 결속력을 공동체 의식과 크게 연관 지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사회 결속력(community cohesion)을 지역사회 구조의 중요한 한 차원(dimension)으로 보는 Lee(2000) 또한 지역사회결속력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서로 도와주고자 하는 감정이라고 정의하면서 지역사회결속력이 감정적인 결속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물론교 마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결속력을 설명하는 Nelson은 결속력은 종교적, 언어학적, 민족적, 경제적인 것인데, 그 핵심에는 동일시와 정체성 개념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감정이 결속력의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한다(Goodsell, 2000).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동일시와 정체성 측면에서의 논의는 긴장영역(tension arear)의 부재라는 의미로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Fessler(1952)는 동일시와 정체성, 즉 공동체 의식의 측면에서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조작화를 해 볼 때, 지역사회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은 지역사회 내 긴장영역이 작거나 부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긴장영역이 지역사회결속력의 중요한 지표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평화로움과 질서 정연함, 지역사회 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그리고 적절한 집단적 판단능력을 갖는 것 등은 바로 긴장영역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측면에서의 지역사회결속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둘째, 위의 논의들이 지역사회결속력을 구성원간 동일시의 감정 및 정체성의 측면에서 다루었다면, 또 다른 논의들은 지역사회결속력을 집합적인 힘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Allen(1999)은 지역사회결속력을 집합적인 힘(collective power)으로 보고 있다. 집합적 힘은 관심이 있는 활동에 대한 상호 약속과 책임 공유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고 책임감과 활동의 결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재창조되는 것인데, 지역사회결속력은 바로 이런 집합적인 힘이라고 Allen(1999)은 주장한다. Morgan(1988)도 사회적 결속력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치적 약속 둘 모두를 고무하는 힘이고 안전감을 제공하는 인간적 연결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Allen

과 Morgan 등은 지역사회결속력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공유하는 책임과 약속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지역사회결속력은 정서적 감정과 동일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집합적 힘임을 강조한다.

셋째, 지역사회결속력은 공통적인 목적성의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MacNair(1996)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적응, 변화, 균형을 가져오는 제도화된 영역인 경제, 정부, 교육, 교회와 사회클럽, 건강과 복지제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역사회결속력은 바로 이러한 지역사회 구성요소의 전체적이고 공통적인 목적 지향성을 의미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Pope과 Johnson(1983)도 지역사회결속력이 앞에서 논의되었던 우애관계와 감성적인 유대의 의미를 지니지만 좀 더 나아가서 공통적인 목적, 즉 변화를 위한 행동(action)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지역사회결속력은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목적에 대한 참여와 협조의 의미까지도 포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유사하게 Lindenberg(1998)도 지역사회결속력이 목적을 향한 구성원들의 합리적 행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Lindenberg(1998)은 '지역사회결속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의 목적을 향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단기적인 공통의 목적을 넘어서 장기적 목적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2) 지역사회결속력의 유용성과 형성방법에 대한 논의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역사회결속력은 지역사회 통합력 향상,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강화, 지역사회 조직화 과정에서의 참여 제고와 지속성 담보 등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첫째, Rubin과 Rubin(2001)은 지역사회결속력은 지역사회 통합력 향상을 가져오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지역사회결속력은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정서적 충성심을 느끼게 하며, 그 집단에 소속된 것으로 자신을 규정하게 함에 의해서 지역사회 통합의 기반을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결속력이 만들어지면 가져오게 될 결과들¹⁾

1) Rubin & Rubin(2001)은 사회적 통합의 형태는 감정적 영향과 관심, 두 가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들의 조합 정도에 따라 지역사회의 형태를 근린지역(neighborhoods), 결속력 지역사회(solidarity community), 사회적 계급(social class), 관계망(network), 이익

은 바로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확고하고 영속적인 유대이고, 이는 지역사회가 통합되게 하는 토대적 기능을 수행하여 결과적으로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증진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

둘째, 지역사회결속력은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고 한다. Kasardara와 Janowitz(1974)에 따르면, 지역사회결속력은 지역사회가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역할(guardianship)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한다. 즉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예방하고 스스로 처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sardara와 Janowitz(1974)는 지역사회구성원들간에 결속력이 형성되면 외부의 어떤 강제가 없더라도 스스로가 상호 약속한 규범이나 법, 제도들에 대한 위반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지역사회결속력이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셋째, 지역사회결속력은 지역사회조직화(community organization)에의 참여 제고와 지속성 담보에 있어 유용성이 높다고 한다. Rubin과 Rubin(2001)은 지역사회조직화에 참여하는 경로는 욕구나 이익, 또는 이해관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데, 지역사회결속력이 형성되면 이런 일차적 이유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관여와 참여가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사회결속력의 내용 중 구성원들간의 동일시와 정체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문화적 긍지가 특히 유효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이들은 이런 결속력은 특히 초기 조직활동에의 참여보다는 조직참여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데²⁾ 보다 많은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유용성을 갖는 지역사회결속력의 형성 과정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결속력은 '집단 행동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책임감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개인간 만남이 주는 기쁨을 통해서 또는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집단에 참여함을 통해서 책임감을 형성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책임감으로부터 사회적 결속력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이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의 하나이다. Hirsch(1986)는 사람

공동체(community of interest)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2) Rubin(1995)은 지역사회결속력으로 형성된 문화적 긍지와 민족적 정체성이 직접적인 물질적 혜택을 얻을 수 없을 때조차도 사람들이 계속 지역사회조직에 관여하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Rubin과 Rubin, 2001, 재인용).

들은 도움을 받으면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것은 호혜성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지역사회에서의 유대감이 증가케 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결속력은 공통적인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동일시를 하게 되고, 동일한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사회의 결속력은 더욱 강하게 형성되어진다는 것이다. Rubin과 Rubin(2001)은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형성되는 지역사회 결속력 같은 민족적 배경을 갖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같은 근린지역에 살고 있을 때 더욱 강해질 수도 있으나, 그러한 배경적 특징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물리적인 지역을 넘어서도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셋째, 지역사회결속력이 형성되어지는 보다 일반적인 과정은 지역사회 이슈의 공유라고 주장한다. 즉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이슈(issue) 그 자체가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Rubin과 Rubin(2001)은 같은 민족적 배경을 갖는 지역사회에서만 아니라 일반적 지역사회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발견되면 이는 조직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다. 참으로 사회의 이슈는 특정 배경을 갖는 지역사회에서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이슈들이 사회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져서 그 결속력을 보다 강화시키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이슈는 특정 민족적인 정체성 등의 배경을 갖는 사회만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결속력을 형성하는데 큰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이들은 주장한다.

2) 지역사회결속력 예측요인 논의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소수의 실증적 연구들이 실시되어졌다. 특히 국내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지금까지 진행된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사회결속력은 두 차원의 분석 단위에 초점을 두어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사회를 분석의 단위로 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구성원 각각을 분석의 단위로 삼는 경우이다. 전반적으로 이 연구들은 실증적으로 지역사회결속력을 분석하는데 있어 정보 및 자료에 접근하는데 제한점들이 있어 변수들을 다양하게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그 관계를 탐색하는데 다소의 한계를

갖는다.

먼저 지역사회를 분석 단위로 삼은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nger와 Wandersman(1982)은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유사성이 지역사회결속력에 정적인 방향에서의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한다. 즉 지위가 유사한 구성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의 경우에 지역사회결속력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지위의 동질성이 지역사회의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위의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Campbell과 Lee(1992)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경제적 수준, 보다 구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가난한가의 정도가 지역사회결속력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즉, 더 가난한 지역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제주도내 마을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결속력을 연구한 김석준(1988)은 마을의 규모, 마을의 토박이적 성격(응답자의 거주 마을 출생여부, 응답자의 그 마을 거주 년도를 연령으로 나눈 값)의 정도, 마을의 사회경제적 지위(연간 총수입, 가입하고 있는 결사체 수, 학력, 동거가족원 수), 마을내 친족관계(남자가구주의 문중회 참여도, 응답자의 8촌 이내 부계친족 중 마을 거주 가구의 구성비) 등의 변수들 중에서 마을의 규모가 결속력과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마을 결사체에의 참여도가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고한다. 생태학적 이론(Wirth, 1938)에서는 지역사회의 인구규모가 결속력에 영향력을 가짐을 주장하는데, 김석준의 연구 결과도 지역사회의 인구규모가 커갈 때 공동체적 결속은 약화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분석의 단위를 지역사회 내 개인으로 두고 지역사회결속력을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obinson과 Wilkinson(1995)은 분석의 단위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보았을 때, 자녀를 양육하는가의 여부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지역사회결속력에 정적인 방향에서 큰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한다. 그리고 Adams(1992)는 지역사회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지역사회의 결속력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보고한다. 우리 나라 지역사회구성원들의 결속력을 지역사회 구성원 개인 단위에서 분석한 홍동식(1988)은 개인적 특성 요인을 귀속적 변인과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나누어서 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홍동식(1988)은 연령이 높은 주민들일수록 지역의 생활관습에 밀착되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사회 결속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고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규모가 더 클수록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의 지역사회결속력은 약화될 수 있음을 보고한다. 그러한 결과가 발생

되는 이유로 홍동식(1988)은 지역 규모가 클수록 주민들간의 일차적 접근기회가 낮아지고, 지역사회 공동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약화되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교육수준의 경우, 그 관계의 방향은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적인 방향을 갖는 것에 대해 홍동식(1988)은 교육수준이 높은 주민일수록 지역사회 외부 사회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활동 참여가 높아(Lerner, 1958; Sanders, 1977), 그만큼 지역에 대한 결속력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위의 연구결과들은 분석의 단위를 개인으로 두었을 때, 개인의 토박이적 성격과 개인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징이 지역사회 결속력과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구의 구성 변수도 역시 지역사회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도 지역사회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사회 결속력은 참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변수들과 관련 지워 연구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의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 보다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함께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성이 크다. 예로 지역사회결속력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인 논의에서 제시하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경험 및 관심과 지역사회결속력의 관계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지지 않아 그 관계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이 크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인 특징 및 지역사회 지위 등이 지역사회결속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관해서도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그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 및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결속력이 어떠한 변수들, 특히 지역사회구성원 개인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요인들과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보다 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크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주요 요인들을 구성해서 지역사회결속력과 이들 요인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자료와 표본에 대한 설명

본 연구는 연구자가 서울시 성북구와 함께 2000년도에 실시한 지역사회조사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자료의 조사대상 지역은 성북구의 30개 동(성북1·2동, 동소문동, 삼선1·2동, 동선1·2동, 돈암1·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1·2·3·4동, 길음1·2·3동, 종암1·2동, 월곡1·2·3·4동, 상월곡동, 장위1동, 장위2동, 장위3동, 석과1·2동)이고 조사대상은 일반주민과 여론주도층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자료는 일반주민의 경우 30개 동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의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형성하였고, 여론주도층의 경우에는 30개 동의 동사무소 동장·계장, 통·반장·부녀회장, 파출소장, 종교지도자, 학교장·교감 또는 주임, 복지관장 및 시설장, 노인정 대표, NGO 단체장, 어린이집 원장, 구립청소년 독서실 대표, 구의원·국회의원·시의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형성하였다.

본 자료에서 일반주민의 표본추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성북구 주민의 14세 이상 인구 416,343명중에서 인구의 0.6% 즉 2,498명이 되게 표본 규모를 설정하였다. 그 후에 30개 동별로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비례층화표본추출 방법(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 method)을 통해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과 인터뷰를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 최종적으로 갖게 된 사례의 수는 1,924명이었다.

한편 여론주도층의 표본추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성북구 각 동별로 파출소장 1인, 종교단체장 2인, 학교 교사(교장, 교감을 중심으로) 2인, 민간단체장 1인 혹은 2인 등 10인 내외로 일괄적으로 모든 동에서 각 대상에 대하여 같은 수의 대상자를 뽑아내는 일괄적층화표본추출방법(dis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방법을 통해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설문지를 보낸 후 인터뷰하는 방법을 통해 자료를 구성하였다. 총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보내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자료화되어 최종 분석에 활용된 사례 수는 397명이었다.

본 자료는 표본의 추출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두 집단을 결합하여 자료를 구성하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자료 구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

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두 집단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차이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2) 변수에 대한 설명

(1) 종속변수—지역사회결속력(Community Solidarity)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지역사회 결속력의 측정을 위해 Fessler(1952)의 '지역사회 결속지수(Community Solidarity Index: CSI)'를 사용한다. Fessler는 지역사회결속력을 구성하는 하위요소를 공동체 의식(community spirit), 대인관계, 제도화된 기능 영역(교육, 경제, 정치 및 행정,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참여, 긴장영역의 부재로 개념화 한 후에 각 하위 개념을 조작화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은 지역사회에 대한 영적인 의식상태 즉, 지역사회에 대한 동일시와 정체성을 의미한다(Fessler, 1952; Goodsell, 2000). 공동체 의식에 관한 문항내용은 지역사회구성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협동, 젊은 세대에 대한 수용성, 타인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 내에서의 동등한 대우 등으로 구성한다. 대인관계는 지역사회 거주자들간의 상호관계의 강도(Ronnby, 1995), 인간적 연결(Allen, 1999; Mogan, 1988; Rubin & Rubin, 2001), 또는 우애적 관계나 감성적 유대(Pope & Johnson, 1983)를 말하는 것으로서, 서로간의 신용과 의사소통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Ronnby, 1995). Fessler(1952)는 지역사회 안에서 친구 관계, 친절, 소속감, 비난이나 비판적이지 않는 것으로 지역사회결속력의 대인관계 개념을 조작화하고 있다. 지역의 제도화된 하위체계들의 순 기능적 지향을 의미하는 제도화된 기능 영역으로 Fessler(1952)는 교육(학교), 경제활동, 지방 정치 및 행정을 꼽는다. Fessler(1952)는 MacNair(1996), Pope 와 Johnson(1983), Lindenberg(1998) 등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러한 제도화된 기능 영역이 지역사회구성원들간 적응, 변화, 균형을 가져오는데 즉 결과적으로는 지역사회결속력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Fessler(1952)는 교육(학교)기능에 대한 문항은 자녀에 대한 교육과 보호, 상급학교에 대한 진학, 지역의 사회기술 훈련의 책임 등으로 조작화 한다. 경제기능에 관한 문항은 구성원들에 대한 공평성, 인색한 정도,

속이고 이용하려는 것 등으로 조작화 한다. 지역정치 및 행정기능에 관한 문항은 지역사회의 지도자, 구청장, 동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순기능 정도, 지역정책, 지방의회 역할 등으로 조작화 한다. 마지막으로 긴장영역 부재에 관해서 Fessler(1952)는 긴장영역 부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평화로움과 질서 정연함,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집단적 판단능력의 적절성 등으로 조작화 하고 있다. Fessler(1952)는 Allen(1999)과 Morgan(1988) 등이 설명하는 것처럼 긴장영역의 부재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결속케 하여 궁극적으로 공통의 목적과 그에 대한 책임감을 구성하는데 큰 기능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Fessler의 지역사회결속지수를 이용하여 지역사회결속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원래의 척도에서 사용된 40문항중 한국적 상황에 적절하다고 판단한 25문항을 선정하여 최종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 후에 신뢰도 검사를 한 후에, 25문항 중 '가족'요인 관련 2문항은 신뢰도가 낮아서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총23개의 문항을 이용하였다. 본 조사도구는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α)는 0.8053 이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지역사회 결속력의 측정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지역사회(community)'에 대한 인지범위를 지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irth(1938)와 홍동식(1988)의 연구는 지역사회의 규모가 결속력과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범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규모 즉 '구' 단위이었다. 이러한 인지범위는 기존의 지역사회 연구들의 지역사회 인지범위보다 다소 큰 범위로서 이러한 지역사회 범위의 차이가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탐색된 것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독립변수의 군을 네 개의 군으로 구성하였다. 즉 개인적 특성 요인, 지역사회 해체 및 특성 요인, 지역사회참여 및 지위 요인, 지역사회 문제 요인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들에 속하는 변수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김석준(1988), 홍동식(1988), Kuo와 Sullivan(1998)의 논의에 근거하여, 개인

적 특성요인으로는 귀속 변수와 토박이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를 사용하였다. 귀속변수에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변수를 사용하였다. 토박이적 변수로는 거주년수를 사용하였다.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동거가족원수와 재산총액, 주택소유형태 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해체 및 특성 요인에서는 주변부 변수로(Campbell & Lee, 1992)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변수와 장애유무 변수를 사용하였다. 가구해체변수로는(Sampson & Groves, 1989) 전통적가족과 비전통적가족으로 구분하였는데, 전통적가족은 부부, 부모+자녀, 조부모+부모+자녀, 조부모+부부로 구성된 경우로 한정하였고, 비전통적가족은 조부모+손자녀, 편부+자녀, 편모+자녀, 독신, 소년소녀가장으로 구성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지역사회특성 변수로 사용된 거주동 변수는 '성북구 구정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되는 바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된 지역변수를 사용하였다³⁾. 이들 네 권역은 각기 모두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서북부 지역은 정릉, 길음 지구로서 정릉동과 길음동, 둔암1동을 포함한 지역이다. 서북부지역은 정릉골짜기의 구릉지대에 주택이 밀집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서남부 지역은 성북, 보문, 안암지구로서 성북, 보문, 안암, 동선, 삼선, 동소문, 둔암2동을 포함한 지역이다. 서남부지역은 안암천의 분지지대를 이루고 있고 동선동, 삼선동, 성북동의 급경사지대에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중앙부 지역은 월곡, 종암지구로서, 월곡, 종암, 상월곡동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중앙부지역은 성북구에서 가장 평탄한 지대를 이루고 있고 미아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성북구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월곡3동, 4동, 상월곡동 경사지대는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동부 지역은 석관, 장위동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동부지역은 중랑천변으로 평탄한 지대에 구획 정리된 밀집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사회참여 및 지위 요인에서 지역사회참여 변수는(김석준, 1988; 박태영 외, 2000; 전산현, 1999) 지역사회활동 참여횟수 변수와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 변수를 통해 측정하였고, 지위 변수는(Kuo & Sullivan, 1998; Unger & Wandersman, 1982) 지역사회 내에서의 지위를 통해 측정하였다. 참여횟수 변수는 지역사회활동에 한달

3) 성북구. 1997. 성북구 구정발전 5개년 계획. 성북구청.

기준으로 평균 얼마나 참여하는가의 횡수로 측정하였다. 지역사회참여활동의 경우, 참여활동내용은 동창회, 향우회, 정기적 동네모임, 학부형모임, 취미모임, 문화행사, 노인회 및 복지관 등의 활동으로 제시하였으며, 참여형태로는 자원봉사활동, 후원 및 결연활동, 친목도모활동, 자치주민단체, 시민단체활동, 정부지원활동 등을 제시하였다. 자원봉사활동경험 유무는 자원봉사활동경험의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지위는 일반세대 주민과 여론주도층의 구분을 통해 측정하였다. 여론주도층을 구성하는 이들의 범위는 앞의 자료 및 연구 대상에서 기술된 지위를 갖는 이들로 한정하였다.

지역사회문제 요인은 지역사회 이슈(issues)와 지역사회결속력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 Rubin & Rubin(2001)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독립변인군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사회문제 요인의 측정은 'Camberwell Assessment of Need Research' (4)에서 측정하는 17가지 지역 문제 중 5가지의 문제, 즉 주거문제, 대인관계문제, 정보문제, 정신건강문제, 음주문제에 초점을 두어 지역사회 문제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들 변수는 가족 구성원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지역사회 문제정도로 표현되고, 각 변수는 3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점 척도는 문제없음, 문제소거 혹은 문제완화, 문제유지(남아 있음)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제의 내용을 정리하면, 주거문제는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관련 문제로서 주거와 관련된 물리적·문화적·생활적 환경문제, 주거 및 거처부재 등을 내용으로 한다. 대인관계문제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교제의 곤란, 사회성 향상 문제, 참여할 사회적 네트워크 부재 문제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정보문제는 지역사회정보에 대한 접근성, 신뢰성, 적절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신건강문제는 우울, 불안, 병적 외로움, 정신병적 증상이나 장애, 스트레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음주문제는 약물문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서, 술과 약물의 일상 생활 위협 정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위에서 기술한 독립변수들의 구성 내용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4) 본 조사도구는 영국의 정신의학연구소인 PRISM 팀이 개발한 도구로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표 3-2〉 독립변수

구분	하위 범주	변수
개인적 특성 요인	귀속변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종교유무
	도박이적변수	거주년수
	사회경제적변수	동거가족원 수, 재산총액, 주택소유형태
지역사회해체, 특성요인		주변부변수(생활보호대상자여부, 장애유무), 가구해체변수(전통적가족, 비전통적가족), 거주동, 주택형태
지역사회참여 및 지위 요인		참여횟수, 자원봉사활동경험 유무, 지역사회 지위(일반세대, 여론주도층)
지역사회문제 요인		주거문제, 대인관계문제, 정보문제, 정신건강문제, 음주문제

3) 분석 방법과 연구질문

본 연구는 먼저 지역사회결속력과 각 독립변수의 분포를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각 독립변수와 지역사회결속력의 관계를 ANOVA와 t-test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결속력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각 하위구성요인 별로 어떤 수준인가?

둘째, 각 독립변수들과 지역사회결속력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다른 변수들을 통제할 때, 어떤 변수들이 지역사회결속력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유의미한 변수인가?

4. 분석

1) 일반적 특징에 대한 기술적 분석 및 독립변수와 지역사회결속력과의 관계 분석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4-1>과 <표 4-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남과 여의 구성이 각 43.5%, 56.5%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평균 42.3세, 평균 거주 년수는 11.2년이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16.6%,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가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연구대상의 61.0%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재산총액의 평균액은 9,032만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27%가 현재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지역사회활동 참여횟수는 한달 평균 3.75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경험을 보면 35.2%가 경험이 있거나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구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는 4.2%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구성에서 82.9%는 일반주민이고, 17.1%는 여론주도층의 구성원이었다. 이 지역의 네 권력별로 응답자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표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서북부의 거주 비율이 가장 높는데 이는 실제의 분포와 유사하다. 조사대상지역의 주택형태는 아파트, 일반주택, 상가 주택이 98.1%로 대부분이 전형적인 주거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빈도분석

변수	구분	빈도	%	변수	구분	빈도	%
성별	남	1009	43.5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유	80	4.2
	여	1312	56.5		무	1844	95.8
교육수준	중등미만	385	16.6	거주동*	서북부	693	36.0
	전문대이하	1420	61.3		서남부	505	26.2
	대졸이상	510	22.0		중앙부	366	19.0
			동부		360	18.7	
종교	유	1401	61.1	주택형태	일반주택, 상가	2167	98.1
	무	893	38.9		영구임대, 무허가	35	1.6
			오피스텔		7	3	
주택소유형태	자기집, 전월세	2284	98.5	지역사회활동 참여 여부	참여함	620	27.0
	영구임대	14	0.6	참여하지 않음	1674	73.0	
	무료	21	0.9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	유	774	35.3
			무	1421	61.2		

* 표 : 거주동4권역 항목은 일반세대 주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표 4-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

변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	2316	42.28	17.32	14	93
재산총액	1953	9033만원	12899.51	10만원	30억원
거주년수	2129	11.22	10.98	.01	78
지역사회활동참여횟수	489	3.75	6.23	.00	30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은 〈표 4-3〉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문제정도의 전체적 경향성은 3점 척도의 중앙값인 2점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이러한 문제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문제들 중 음주문제 정도가 평균 1.03이고 표준편차가 0.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문제의 정도는 1.87로 다른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 연구대상의 지역사회 문제 수준

변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거문제	1924	1.82	.97	1	3
대인관계문제	764	1.87	.34	1	2
정보문제	1924	1.49	.85	1	3
정신건강문제	1924	1.23	.63	1	3
음주문제	1924	1.03	.23	1	3

〈표 4-4〉는 연구대상자의 지역사회결속력 수준을 정리한 표이다. 지역사회결속력 수준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점에서 5점까지로 표준화했을 때 전체 평균이 3.10으로 그 수준이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결속력을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 결속력수준이 평균 3.4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기능 결속력 수준이 3.36, 공동체 의식 결속력 수준은 3.23,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 수준은 3.21, 지역정치 및 행정기능 결속력은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요인들 중 경제기능 요인의 결속력 수준은 2.93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의 경우,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 수준이 가장 작은 표준편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기능 결속력이 가장 큰 표준편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연구대상의 결속력 수준

변수	평균	표준편차	빈도	최소값	최대값
결속력	3.10	.49	2258	1.25	4.75
공동체 의식결속력	3.23	.49	2255	1.20	5.00
대인관계결속력	3.45	.47	2248	1.00	4.75
교육기능결속력	3.36	.49	2275	1.67	5.00
경제기능결속력	2.93	.55	2254	1.00	5.00
지역정치·행정기능 결속력	3.17	.49	2270	1.00	4.33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	3.21	.34	2152	1.76	4.3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각 독립변수에 따른 지역사회결속력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4-5>와 <표 4-6>에서 정리되는 바와 같다. 주택소유형태,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주택형태 등의 변수는 각 집단 간 빈도 규모의 차이가 많아 다소의 문제가 있고 그 결과의 의미가 제한적이긴 하나, 선행연구에서 탐색된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는 차원에서 분석에 포함하였다. 전체 결속력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교육수준, 자원봉사활동경험, 거주동 등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는 경우 결속력이 더 높고, 중앙권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결속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속력의 하위구성요인별로 결속력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체 의식 결속력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성별, 자원봉사활동경험, 교육수준, 거주동 등이었다. 대인관계 결속력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지역사

회 지위, 교육수준, 거주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능 결속력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자원봉사활동경험, 교육수준, 거주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능 결속력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종교유무, 생활보호대상자여부, 거주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치 및 행정기능 결속력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여부, 자원봉사활동경험, 지역사회 지위, 교육수준, 거주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지역사회 지위, 교육수준, 거주동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그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변수 형태의 독립변수와 지역사회결속력 및 그 하위요인의 상관관계를 보면, 지역사회결속력과의 관계를 보면, 연령, 거주년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인 관계를 갖으나 그 관계의 정도는 미약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역사회문제들 역시 지역사회결속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대부분 부적인 관계를 갖으나, 그 관계의 정도는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집단 간 결속력 수준 (t-test)

변수	구분	결속력			공동체의식결속력			대인관계결속력			교육기능결속력		
		평균값	표준편차	t	평균값	표준편차	t	평균값	표준편차	t	평균값	표준편차	t
성별	남	3.2002	.3608	-.701	3.0697	.5171	-2.219*	3.2197	.5055	-1.076	3.4567	.4942	1.022
	여	3.2105	.3185		3.1155	.4612		3.2422	.4764		3.4361	.4565	
종교유무	유	3.2014	.3349	.916	3.0913	.4894	.594	3.2218	.4918	1.373	3.4413	.4673	.341
	무	3.2137	.3399		3.1033	.4834		3.2508	.4845		3.4483	.4810	
생활보호대상자여부	생활보호	3.1657	.2771	-1.324	3.0779	.4121	-.407	3.1351	.4273	-2.158*	3.3896	.4045	-1.404
	일반	3.2096	.3295		3.1010	.4895		3.2543	.4770		3.4562	.4675	
가구해체	전통	3.2089	.3423	.238	3.1029	.4872	.431	3.2147	.4927	1.123	3.4435	.4786	-.497
	비전통	3.2038	.3110		3.0905	.4641		3.2084	.4817		3.4571	.4400	
자원봉사활동경험	유	3.2426	.3566	-3.509**	3.1427	.5088	-3.347**	3.2506	.5096	-1.529	3.4843	.4759	-2.602**
	무	3.1859	.3288		3.0675	.4701		3.2160	.4785		3.4283	.4723	
지역사회지위	일반	3.2073	.3281	.410	3.1001	.4862	.991	3.2484	.4761	3.520	3.4533	.4647	1.855
	여론주도	3.1990	.3859		3.0726	.4896		3.1504	.5453		3.4034	.5130	

변수	구분	경제기능 결속력			지역정치, 행정기능결속력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		
		평균	표준편차	t	평균	표준편차	t	평균	표준편차	t
성별	남	3.3634	.5155	.366	2.9340	.5861	.377	3.1621	.5105	-.832
	여	3.3638	.4761		2.9252	.5211		3.1792	.4673	
종교유무	유	3.3438	.5014	2.509*	2.9364	.5597	-.747	3.1325	.4846	.233
	무	3.3964	.4758		2.9189	.5300		3.1575	.4834	
생활보호대상자여부	생활보호	3.2479	.3890	-2.204*	3.0260	.4599	2.527	3.1453	.4701	-.717
	일반	3.3714	.4881		2.8298	.5368		3.1843	.4761	
가구해체	전통	3.3700	.4957	.828	2.9305	.5515	-.092	3.1680	.4918	-1.180
	비전통	3.3452	.4874		2.9334	.5204		3.2011	.4512	
자원봉사활동경험	유	3.3831	.5066	-1.559	3.0187	.5787	-4.976**	3.1793	.4885	-.561
	무	3.3479	.4903		2.8921	.5259		3.1669	.4876	
지역사회지위	일반	3.3658	.4857	.376	2.8949	.5353	-6.768**	3.1818	.4761	2.199
	여론주도	3.3554	.5317		3.1067	.5918		3.1215	.5336	

주: # p<.1, * p<.05, ** p<.01

<표 4-6> 집단 간 결속력 수준 (ANOVA)

변수	구분	결속력			공동체 의식결속력			대인관계결속력			교육기능결속력		
		평균값	표준 편차	F	평균값	표준 편차	F	평균값	표준 편차	F	평균값	표준 편차	F
교육 수준	국졸이하	3.2960	.3144	15.576**	3.1723	.4619	6.306**	3.3553	.4777	15.154**	3.5034	.4259	4.354*
	전문대이하	3.1849	.3361		3.0722	.4977		3.2150	.4860		3.4245	.4799	
	대졸이상	3.1973	.3474		3.1020	.4683		3.1858	.4934		3.4591	.4856	
주거 형태	일반주택, 상가	3.2079	.3389	2.213	3.0968	.4871	.971	3.2339	.4906	2.411	3.4482	.4762	1.465
	영구임대, 무허가	3.2307	.3171		3.1875	.4623		3.2125	.4737		3.3333	.3239	
	오피스텔	3.9421	.3464		2.9286	.4940		2.8286	.4231		3.2500	.5401	
소유 형태	자가, 전월세	3.2069	.3375	.484	3.0955	.4858	1.373	3.2347	.4863	1.457	3.4451	.4746	.295
	영구임대	3.1544	.1525		3.2708	.2911		3.0769	.2242		3.4167	.2887	
	무료	3.1320	.4240		2.9737	.5707		3.0889	.8547		2.4456	.3627	
거주동	서북부	3.234	.348	6.742**	3.108	.549	5.149**	3.304	.516	11.465**	3.521	.456	16.278**
	서남부	3.212	.301		3.068	.436		3.229	.447		3.473	.420	
	중앙부	3.139	.331		3.051	.455		3.134	.459		3.313	.482	
	동부	3.223	.311		3.179	.449		3.293	.429		3.439	.494	

변수	구분	경제기능결속력			지역정치, 행정기능 결속력			간장영역 부재 결속력		
		평균값	표준 편차	F	평균값	표준 편차	F	평균값	표준 편차	F
교육 수준	국졸이하	3.4200	.4984	2.929#	2.9834	.5243	3.341*	3.3254	.4654	24.573**
	전문대이하	3.3510	.4889		2.9067	.5404		3.1515	.4753	
	대졸 이상	3.3599	.5000		2.9502	.5933		3.1111	.5081	
주거 형태	일반주택, 상가	3.3686	.4939	1.512	2.9284	.5490	.259	3.1733	.4881	2.098
	영구임대, 무허가	3.3431	.4819		2.9063	.5914		3.2222	.4900	
	오피스텔	3.0481	.4479		2.7857	.6195		2.8090	.5045	
소유 형태	자가, 전월세	3.3661	.4942	1.693	2.9298	.5484	.181	3.1726	.4871	.486
	영구임대	3.1429	.3860		2.8846	.7261		3.0303	.3146	
	무료	3.2833	.4748		2.8611	.6709		3.1930	.5130	
거주동	서북부	3.403	.506	6.207**	2.792	.582	15.177**	3.266	.491	12.621**
	서남부	3.353	.455		2.984	.475		3.171	.423	
	중앙부	3.278	.502		2.962	.532		3.101	.517	
	동부	3.405	.455		2.903	.532		3.124	.449	

주: # p<.1, * p<.05, ** p<.01

〈표 4-7〉 상관관계

변수명	결속력	공동체의식	대인관계	교육기능	경제기능	지역정치, 행정기능	긴장영역 부재
연령	.138 **	.053 *	.143 **	.076 **	.068 **	.068 **	.152 **
거주년수	.137 **	.041	.211 **	.061 **	.111 **	.003	.135 **
재산총액	.002	-.007	.001	-.008	-.023	.044	-.035
가족원수	.023	.007	.025	.019	.056 **	-.013	-.011
참여횟수	.087	.044	.063	.088	.072	.036	.112 *
주거문제	-.055 **	-.033	-.030	.018	-.038	-.104 **	-.047 *
대인관계문제	.100 **	.036	.120 **	.084 *	.105 **	-.105	.075 *
정보문제	-.107 **	-.125 **	-.123 **	-.076 **	-.063 **	-.020	-.058 *
정신건강문제	-.072 **	-.030	-.077 **	-.048 *	-.108 **	.041	-.071 **
음주문제	-.097 **	-.050 *	-.081 **	-.074 **	-.050 *	-.053 *	-.053 *

2) 지역사회결속력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아래 〈표 5-1〉에서 〈표 5-3〉까지는 전체결속력수준과 결속력의 하위구성요인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속력의 하위구성요인으로는 공동체의식, 대인관계, 지역사회에서 제도화된 기능영역(교육, 경제, 지역정치 및 행정) 그리고 긴장영역의 부재 등이다. 본 연구는 독립변수로 개인적 특성변수들, 지역사회해체 및 특성변수들, 지역사회참여 및 지위 변수들, 지역사회 문제변수들을 포괄하여 모델을 구성한 후에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회귀모델을 구성함에 있어, 위의 변수들 중 주거문제, 정신건강문제, 음주문제 등은 결속력과 다항식(polynomial)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모델의 구성 과정에서 다항식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표 5-1〉은 지역사회결속력 전체의 수준을 설명하는 모델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이 모형의 조정된 결정계수는 0.222정도이고, 결속력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개인적 특성요인 중에서는 가족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족원 수의 경우, 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의 수가 더 많을수록, 지역사회결속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해체 및 특성 요인 중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유무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경우, 결속력 수준이 일반주민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하면서 주변부화된 구성원들의 결속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단위를 개인(빈곤한 구성원 대 일반 구성원)으로 했을 때와 지역단위(빈곤지역 대 일반 지역)로 했을 때의 결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한편 거주동의 경우, 일반적 유의수준에 근접한(marginal)한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거주지 중심지역인 서북부 지역의 결속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안정적인 거주지 구성원의 지역사회결속력이 다소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사회참여 및 지위 요인 중에서는 지역사회 참여활동횟수가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참여가 보다 많을수록, 지역사회결속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활동에의 참여 경험이 지역사회에 대한 결함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표 5-1〉 지역사회결속력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변 수			지역사회결속력		
			B	S.E	
개인적 특성요인	귀속변수	연령	.005	.003	
		교육수준	국졸이하	-.017	.164
			대졸이상	-.038	.094
	도박이적 사회경제적	거주년수	.002	.009	
		가족원수	.056 *	.027	
지역사회 해체 및 특성요인	해체 및 특성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791 **	.246	
		거주동	서북부	.189 #	.095
			서남부	-.097	.103
			중앙부	-.091	.090
			동부	-	-
지역사회참여,지 위요인	참여	참여횟수	.029 *	.014	
		자원봉사 경험	-.009	.083	
		지역사회 문제요인	문제	주거문제	.927 *
주거문제 ²	-2.097 *			.870	
대인관계문제	.270 #			.147	
정보문제	-.062			.044	
정신건강문제	.685			.705	
정신건강문제 ²	-1.291			.945	
음주문제	-.415			-.258	
음주문제 ²	.411			.346	
	constant	3.664 **	.452		
	Adjusted R ²		.222**		
	N		764		

주: # p<.1, * p<.05, ** p<.01

지역사회 문제 요인에서는 주거문제가 결속력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문제는 지역사회결속력과 다항식(polynomial)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문제에 대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일정수준의 지점까지는 지역사회결속력과 주거문제의 인식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나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존재한다고 인식하면 할수록 결속력과 주거문제의 인식은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인관계의 경우, 일반적 유의수준에 근접한(marginal)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있을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대인관계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할수록 즉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이 약하다고 인식할수록 지역사회결속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연구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인관계문제가 큰 경우, 그 만큼 문제해결에 대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를 기대하는 정도가 커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5-1〉의 결과는 지역사회결속력이 다양한 변수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만한 변수가 생활보호대상자여부와 지역사회참여 및 지역사회문제 변수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결과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특히 더 낮은 결속력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 이들의 결속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보다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위의 결과는 특히 결속력이 지역사회참여 변수와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주거문제와 같은 지역사회문제 변수와는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결속력 제고를 위한 전략에 다소의 함의를 준다고 본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강화하는 것과 지역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다양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전개하는 것이 지역 구성원들의 결속력 제고의 기본적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2〉는 결속력의 하위구성 요인중 공동체의식 결속력, 대인관계 결속력,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의 수준을 설명하는 모델들의 분석결과이다. 공동체의식 결속력 모형의 조정된 결정계수는 0.094정도이고, 공동체의식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원수, 생활보호대상자여부, 정보문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북부 지역은 일반적 유의수준에 근접한(marginal)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주민보다 공동체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적인 주거 지역으로 평가되는 서북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공동체의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구성원이 정보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즉 지역사회에서 이에 대한 해결대안이 약하다고 인식할수록, 공동체의식 수준은 감소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서의 정보 접근성 부재 등이 공동체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공동체의식에 대한 위의 분석은 안정적인

주거지역의 공동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보문제가 공동체 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 특성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다름을 인식하면서 이를 지역사회실천과정에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활동 즉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활동이 공동체의식 함양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실천 과제의 개발도 필요함을 인식케 한다.

〈표 5-2〉 하위요인별 결속력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공동체의식 결속력		대인관계 결속력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		
	B	S.E	B	S.E	B	S.E	
연령	.003	.005	.003	.005	.011 *	.005	
교육수준	국졸이하	-.136	.227	.121	.234	-.267	.235
	대졸이상	.093	.135	-.214	.139	-.136	.135
	전문대이하	-	-	-	-	-	-
거주년수	.008	.012	.007	.013	-.005	.012	
가족원수	.083 *	.038	.075 #	.039	.021	.038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서북부	-.733 *	.347	-.597 #	.357	-1.107 **	.353
	서남부	.237 #	.136	.181	.140	.135	.137
거주동	중앙부	-.001	.147	-.050	.152	-.236	.148
	동부	.003	.128	.037	.132	-.168	.129
	동부	-	-	-	-	-	-
참여횟수	.027	.018	.006	.018	.035 #	.021	
자원봉사 경험	.192	.118	.022	.122	-.019	.119	
주거문제	.360	.656	1.633 *	.676	.942	.659	
주거문제 ²	-.819	1.245	-3.631 **	1.282	-1.972	1.249	
대인관계문제	.289	.211	.293	.217	.376 #	.211	
정보문제	-.151 *	.063	-.108 #	.065	-.090	.063	
정신건강문제	.409	1.004	1.39	1.034	.152	1.011	
정신건강문제 ²	-.662	1.346	-.854	1.386	-.379	1.357	
음주문제	-.732	.389	-.898	.379	-.127	.384	
음주문제 ²	.878	.522	-.898	.379	.065	.515	
constant	2.751 **	.644	4.406 **	.663	3.340 **	.648	
Adjusted R ²	.094		.148*		.142*		
N	764		764		764		

주: # p<.1. * p<.05. ** p<.01

다음으로 대인관계 결속력 모델의 분석결과를 보면, 이 모형의 조정된 결정계수는

0.148정도이고, 대인관계 결속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거문제 일차항과 이차항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원수, 생활보호대상자여부, 정보문제 변수는 일반적 유의수준에 근접한(marginal)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문제의 경우, 일차항의 변수는 정적인 방향에서 그리고 이차항의 변수는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문제에 대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의 지점까지는 주거문제의 인식은 대인관계 결속력과 정적인 관계를 가지나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존재한다고 인식하면 할수록 주거문제의 인식은 대인관계 결속력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대인관계 결속력 수준이 높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대인관계 결속력은 일반 구성원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지역사회결속력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에 이어 대인관계에서도 일반구성원과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체의식 결속력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 결속력 수준에서도 정보문제는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인 관계 결속력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주거문제 이차항, 정보문제와 같은 문제 변수와 생보자 유무와 같은 주변부 변수 등이 대인관계 결속력과 부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특징 혹은 이러한 인식이 강한 구성원들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타인을 수용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인관계 결속력의 수준이 보다 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특징 혹은 인식을 갖는 구성원들의 대인관계결속력 제고를 위한 실천 과제 개발이 매우 필요함을 인식케 한다.

〈표 5-2〉의 마지막 모델인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 모델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 모델의 조정된 결정계수는 0.142정도이다. 그리고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생활보호대상자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활동 참여횟수와 대인관계문제 변수는 일반적 유의수준에 근접한(marginal)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연령과 지역사회활동 참여횟수, 대인관계문제는 긴장영역 결속력 수준과 정적인 관계를 갖고, 생활보호대상자여부는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가 많을수록,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경향성을 가질수록, 지역사회에서 긴장의 부분이 작게 존재한

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결속력 전체에서만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대인관계에 이어 긴장영역 결속력에서도 이들의 결속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여부가 부적인 방향에서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에 영향력을 갖고 지역사회참여가 정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변수는 주변부 변수 즉 빈곤 여부가 긴장영역 결속력에서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지역사회복지 실천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주목해야 하는 대상이 이들로서 우리에게 이들의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제가 확실하게 존재함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긴장영역 결속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즉 보다 편안하고 공평한 지역이라는 인식의 강화를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빈곤한 지역구성원들과 낙후된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한 보다 차별적인 노력이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적 개입 활동의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한편 지역사회참여 변수는 지역 구성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이 구성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고하는데 즉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정주의식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음을 인식케 한다. 그리고 이는 또한 앞으로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5-3〉 하위요인별(제도화된 기능영역) 결속력 수준에 대한 회귀분석

변수	교육기능 결속력		경제기능 결속력		지역정치 및 행정기능 결속력	
	B	S.E	B	S.E	B	S.E
연령	.003	.004	.007	.005	-.002	.005
교육수준						
국졸이하	.169	.193	-.187	.234	.401 #	.239
대졸이상	.096	.114	.051	.134	-.139	.142
전문대이하	-	-	-	-	-	-
거주년수	.008	.010	.007	.012	-.013	.013
가족원수	.083 *	.032	.047	.039	.017	.040
생활보호대상자 유무	-.939 **	.294	-.885 *	.359	-.278	.365
서북부	.332 *	.116	.128	.141	.138	.143
거주동						
서남부	-.104	.125	-.289 #	.152	.122	.155
중앙부	-.269 *	.109	-.229 #	.132	.018	.135
동부	-	-	-	-	-	-
참여횟수	.020	.015	.019	.018	.031 #	.019
자원봉사 경험	.024	.100	-.101	.121	-.211 #	.124
주거문제	.516	.557	.983	.680	1.003	.691
주거문제 ²	-1.447	1.056	-2.215 #	1.288	-2.303 #	1.310
대인관계문제	.391 *	.179	.246	.217	-.009	.222
정보문제	-.038	.053	-.003	.065	.038	.222
정신건강문제	1.093	.852	1.637	1.039	1.038	1.057
정신건강문제 ²	-1.877	1.143	-2.580 #	1.393	-1.894	1.417
음주문제	-.235	.374	-.453	.393	.089	.437
음주문제 ²	.150	.502	.514	.528	-.305	.587
constant	3.509 **	.546	3.930 **	.663	4.255 **	.677
Adjusted R ²	.335**		.157*		-.005	
N	764		764		764	

주: # p<.1, * p<.05, ** p<.01

〈표 5-3〉은 결속력의 하위구성 요인 중 지역사회 내의 제도화된 기능영역들 즉, 교육기능, 경제기능, 지역정치 및 행정기능 각각의 결속력수준에 대한 회귀 모형의 결과표이다. 우선, 교육기능 결속력수준에 관한 모형을 살펴보면, 이 모형의 결정계수는 0.335이고, 교육기능 결속력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원수, 생활보호대상자여부, 서북부지역, 중앙부지역, 대인관계문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육기능 결속력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결속력에 대한 앞의 분석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생활보호자의 경우에 일반주민보다 교육기능 결속력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북부지역은 동부지역보다 교육기능 결속력 수준이 높고, 중앙부지역은 동부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앙부지역의 교육기능 결속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구성원이 대인관계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지할수록 즉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해결대안이 약하다고 인식할수록 교육기능 결속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능 결속력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지역사회 해체 및 지역 특성이 교육기능 결속력과 큰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뿐만이 아니라 거주지역 차이도 교육기능결속력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의 환경 자체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교육기능 결속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일반 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경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입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하는 보다 다양한 서비스 활동과 기타 전문적 개입 활동이 교육기능 결속력을 보완하고 보충하기 위해 보다 많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식케 한다.

다음으로 경제기능 결속력 모형의 분석결과를 보면, 이 모형의 조정된 결정계수는 0.157정도이고, 경제기능 결속력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생활보호대상자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남부지역, 중앙부지역, 주거문제 이차항변수, 정신건강문제 이차항변수는 일반적 유의수준에 근접한 (marginal)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보호대상자여부와 서남부지역과 중앙부지역은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문제와 정신건강문제는 경제기능 결속력과 다항식의 관계를 갖는데, 두 변수 모두 이차항의 변수가 부적인 방향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거문제와 정신건강문제 각각은 일정수준까지는 정적인 관계를 갖지만, 일정수준 이후부터는 즉,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구성원이 주거문제와 정신건강문제 각각에 대해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할수록 경제기능에 대한 결속력수준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제기능 결속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역사회 해체 및 지역 특성이 경제기능 결속력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지역사회문제도 주목할만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구성원의 빈곤 여부 즉 주변부화 된 것의 여부, 그리고 거주지역의 차이가 경제기능 결속력 인식에서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긴장영역 부재 결속력의 분석에서도 강조하였듯이, 경제기능 결속력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빈곤하면서 주변부화된 지역구성원들과 낙후된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보다 차별적인 노력이 제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적 개입 활동의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을 인식하게 한다. 즉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주변부화된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개입이 보다 강도 높게 다각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보다도 큼을 보여준다.

〈표 5-3〉의 마지막 모델인 지역정치 및 행정기능 결속력 모델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 모델의 조정된 결정계수는 -0.005 로서 모델의 설명도 및 유의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정치 및 행정 기능 결속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비록 주거문제 이차항 변수 등의 일부 변수들의 경우 일반적 유의수준에 근접한(marginal) 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정치 및 행정기능 결속력과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변수들의 관련성이 매우 작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결속력 척도 구성의 타당성 시각에서 그리고 독립 변수 설정의 적절성 시각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실증적 분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연구결과 및 함의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의 주요한 실천 목적이면서 지역사회 사정의 요소이자 자

원인 지역사회결속력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고, 어떠한 요인이 지역사회결속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결속력을 분석하는데 있어, 선행연구들이 주목하였던 개인적 특성요인과 지역사회 해체 및 특성요인에 더해, 지역사회복지실천과 관련해 주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 및 지위요인과 지역사회문제 인식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서울시 한 자치구의 30개 동에 거주하는 일반주민 1924명과 여론주도층 397명으로부터 획득된 자료를 기초로 했을 때, 지역사회결속력 수준은 5점 척도 기준에서 전체 평균이 3.10 즉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하위 요인인 대인관계 결속력수준은 평균 3.4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교육 기능(3.36), 공동체 의식(3.23), 긴장영역의 부재(3.21), 지역 정치 및 행정 관련 기능(3.17), 경제적 공평성 기능(2.93)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결속력이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적 특성 요인, 지역사회 해체 및 특성 요인, 지역사회 참여 요인,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예측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목되는 변수들은 생활보호대상자여부 변수, 지역사회참여 변수, 자원봉사참여 변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 변수들이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경우 지역사회결속력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는데, 이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보다 차별화된 특별한 노력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다 많이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큼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참여 경험이 많거나 자원봉사참여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의 경우 지역사회결속력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강화하는 것이 지역사회결속력 제고를 위해 중요하고 지역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노력해야 하는 과제의 하나가 바로 참여 제고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각하게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 지역사회결속력은 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구성원들이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지역사회결속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지역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이 바로 지역사회결속력의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지금까지 주요한 논의 주제가 아니었던 지역사회결속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인식 혹은 인식 제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결속력은 클라이언트의 지지적 환경조성과 지역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자치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조건일 수 있는데,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 및 논의의 확대를 통해 이 개념의 기반과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세워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설계하는데 있어 지역사회결속력이라는 자원이 어떠한 수준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 이의 적극적 활용의 필요성을 보다 깊게 새겨 나가는 노력이 전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지역사회결속력의 부재가 주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현대 도시 지역에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관점에서 지역사회결속력 수준 향상을 위한 합목적적 개입 실천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농촌지역이나 소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던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일반적 특성 등의 변수가 지역사회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는 연령이나 거주년수 등과 같은 시간 변수보다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지역 특성, 지역활동참여, 지역문제 인식 등의 변수가 지역사회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역사회결속력의 형성 혹은 강화를 위한 개입 노력이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개입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관심과 한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결속력 형성 및 강화를 위한 합목적적인 개입실천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결속력 제고를 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있어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참여를 강화시키는 전략이 무엇보다도 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차원에서 참여를 위한 전략과 기술 등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보다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차원에서 지역문제해결의 방안들을 지역 구성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인식시키고 해결노력에 함께 참여케 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지역사회결속력 제고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지역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끊임 없이 탐색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결속력 수준 향상에 있어 유효한 실천적 전략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결속력 형성 및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 지역사회 문제들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슈화하면서 문제에 대해 구성원들이 공유된 의식을 갖게 하고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및 기제들에 대한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결속력의 개념 및 척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보다 적합할 수 있는 지역사회결속력 개념을 개발해 나가면서 그 구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척도에 대한 개발 논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또한 미국에서 오래 전에 개발되어져 사용되어온 개념과 척도에 의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의 제한성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본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시각에서 지역사회결속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사회결속력 개념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면서 그 구성 요소 및 척도에 대한 연구도 보다 실증적이고 다각적으로 실행해 볼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향후의 후속연구들에 의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전개될 수 있을 때 지역사회결속력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새로운 구성 개념이자 실천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측면에서 지역사회결속력을 조명하면서 우리 나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결속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여 최초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즉 이러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결속력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면서 후속연구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차자료 분석이라는 연구 성격과 관련하여 변수의 제한성과 사용된 척도의 적절성 등

에서 다소의 제한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에 기초한 후속연구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필요성들을 실제화 하는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후속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영역에서 지역사회복지결속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식, 전략 및 기술들이 마련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 김석준. 1988. "제주도 농촌주민의 계결사채 참여와 사회적 유대". 한국사회학, 제2호. 겨울호. pp.117~141.
- 박태영 외. 2000.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haknoe/bogji/013.htm>.
- 성북구청. 1997. 성북구 구정발전 5개년 계획. 성북구청.
- 성북구청. 2000. 성북구지역사회 복지자원 현황과 복지욕구에 관한 조사. 성북구청.
- 전산현. 1999. "지역연결망 및 지역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자원봉사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vol.38. pp.234~254.
- 정무성. 2000. "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haknoe/bogji/013.htm>.
- 홍동식. 1988. "농업의 상업화와 농촌사회변동-부락의 공동유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호. 여름호. pp.91~108.
- 황성철. 1997. "지역사회복지와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 한국사회복지학회지. 한국사회복지학회.
- Adams, R. E. 1992. "Is happiness a home in the suburbs? The influence of urban versus suburban neighborhood on psychological healt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0. pp.353~372.
- Allen, A. 1999. "The Power of Feminist Theory: Domination, Resistance, Solidarity." *Feminist Theory and Politics*. Series edited by A. Jaggar and V Held. Boulder, CO: Westview.
- Campbell, J. C. E., & Lee, B. A. 1992. "Sources of personal neighbor networks: Social integration, need, or time?." *Social Forces*, vol.70. pp.1077~1100.
- Durkheim, E. 1964.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translated by G. Stimpson. New York : Free Press.
- Fellin, Phillip. 1995. "Demographic Development of Community." *The Community and the Social Worker*, 2th ed. F. E. Peacock Inc. pp41~57.
- Fessler, Donald M., 1952. "The development for measuring community solidarity." *Rural Sociology*, vol.17. pp.144~152.
- Goodsell, Todd. 2000. "Maintaining solidarity: A look back at the Mormon village." *Rural Sociology*, vol.65.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 Hirsch, Eric L. 1986. "The Creation of Political Solidarity in Social Movement Organization." *The Sociological Quarterly*, vol.27. no.3. pp.373~387.
- Kasandara, John & Janowitz, Morris.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39, pp.328~339.
- Kuo, Frances E., Sullivan, William C, Coley, Rebekah Levine, Brunson, Liesette. 1998. "Fertile ground for community: Inner-city neighbourhood common spaces."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26, pp.823~851.
- Lee, Matthew R. 2000. "Community cohesion and violent predatory victimization: A theoretical extension and cross-national test of opportunity theory." *Social Forces Chapple Hill*, vol.79, pp.683~706.
- Lerner, Daniel. 1958. *The Passing of Traditional Society : Modernizing Middle East*. Glencoe, III: The Free Press.
- Lindenberg, S. 1998. "Solidarity: Its Microfoundations and Macropendence. A Framing Approach." *Problem of Solidarity: Theories and Models*, edited by P. Doreian and T. Fararo. Amsterdam: Gordon and Breach, pp.61~112.
- MacNair, Ray H., 1996. "Theory for community practice in social work: the example of ecological community practice." *Community Practice: Conceptual Models*, vol.3.No.3/4 1996. The Haworth Press, pp.181~202.
- Miller, Delbert C. 1991. "Community." *Handbook of Research Design and Social Measurement*, 5th ed. pp.415~429.
- Milson, F. 1974. *Introduction to Community Work*. London
- Morgan, David L. 1988.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ries*. Newbury Park, CA: Sage.
- Nelson, L. N.d. Nelson, Lowry: Papers. Harold B. Lee Library, Brigham Young University, Provo.
- Pope, W. & Jonson, B.D. 1983. "Inside Organic Solidar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83, pp.681~692.
- Robinson, D., & Wilkinson, D. 1995. "Sense of community in a remote mining town: Validating a neighborhood cohesion scal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3, pp.137~148.
- Ronnby, Alf. 1995. *Mobilizing Local Communities*, Avebury.
- Rubin, Herbert J. & Rubin, Irene S. 2001. "Understanding Community." *Community organizing and development*, 3th ed. Allyn and Bacon, pp.97~116.
- Sampson, Robert J., & Groves, W. Byron.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94, pp.774~802.
- Sanders, Irwin T., 1979. *Rural Society*. Englewood Cliffs, NJ:Prentice Hall.

Swedner, H. 1983. *Social Work - a Frame for Thought*. Lund. Liber.

Unger, D. G., & Wandersman, A. 1982. "neighboring in an urban environ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13. pp.139~169.

Williams, Collin C., & Windebank, Jan. 2000. "Self-help and mutual aid in deprived urban neighborhoods: Some lessons from Southampton." *Urban Studies*. vol.37(1). pp127~147.

Wirth, Louis.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44.

A Study of Community Solidarity-- An Exploration for Effective Community Practice

Kang, Chul Hee

(Associate Professor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Hong, Hyun Mee La

(Researcher of Korea Center for City and Environment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the level of community solidarity in an administrative district in Seoul,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is the level of community solidarity in the district? and what are the major predictors of community solidarity?. Using the data from the 2000 community survey about residents' needs conducted by the welfare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district,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In analyzing the effect of community solidar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following four predictor categori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community related characteristics such as degree of marginalization; community participation, and community problems.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of community solidarity is 3.1, using 5 points scale; and (2) the variables such as marginalization and community problem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level of community solidarity; and (3) community particip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level of community solidarity.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is paper provides valuable knowledge about the level of community solidarity and effects of community participation, marginalization, and community problem on community solidarity.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implications for effective community practice on the basis of the exploratory findings about community solidarity in Korea.